

지상진료실

악교정수술(ⅩⅡ)

-상악후퇴증-

서울중앙병원 치과

김재승

‘상악후퇴증’이란 윗턱이 두개부와 하악부에 비해 후방으로 위치된 것을 말한다. 보통 상악후퇴증이 있는 경우 삼차원적으로 상악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하악이 커보이고 하악이 autorotation 되어 윗입술이 들어가서 dish-face 양상을 보인다. 상악후퇴증의 원인으로는 악안면외상, 구개파열등의 기형 그리고 턱변형을 들 수 있다.

외상에 의한 상악후퇴증의 발생은 상악골절의 치료지연에 있다. 즉 상악골절은 교통사고등의 대형사고에서 발생하며 외상시 뇌진탕, 뇌기저부골절 또는 경추손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명에 긴요한 처치가 우선적으로 행해짐으로 그 치료가 지연되는 경

향이 있다. 반면 항상 움직이는 하악골과는 달리 상악골은 두개부에 고정되어 있고, 골의 피질골이 적고 해면골이 풍부하여 골절치유가 빨라 1주~3주쯤 지나면 골절부의 분리가 어려워진다. 골절후 2-3개월된 상악골조직은 턱변형수술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, 눈에 대한 증상이 없으면 Le-Fort I osteotomy나 high Le-Fort I osteotomy로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상악을 회복시킬 수 있다. 본 증례로 교통사고로 상악골 골절이 생긴 환자는 골절후 7개월후에 턱교정수술로써 Le-Fort I osteotomy를 시행하여 안모와 턱- 저작근계의 기능을 회복시키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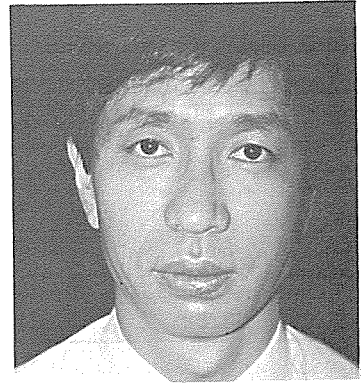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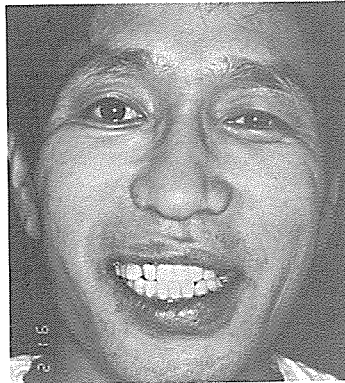


사진 1. 상악골골절로 상악이 후·하방으로 전위되어 상악의 우측부위가 비대칭적으로 함몰되었던 것이 수술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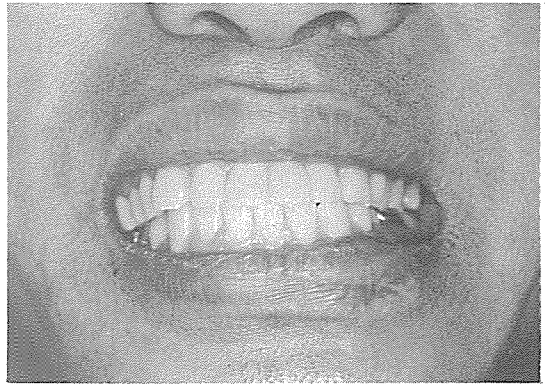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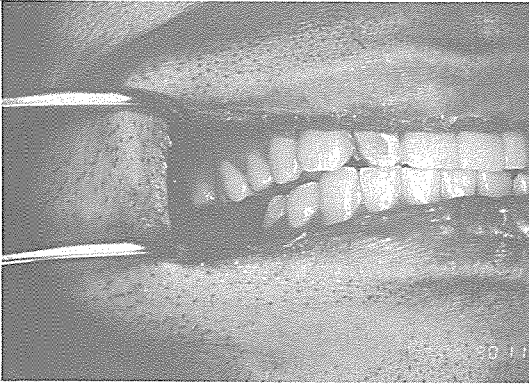


사진 2. 상악골전체가 치아와 함께 좌측으로 전위된 부정교합이 Le-Fort I 골절단술후 정상적으로 개선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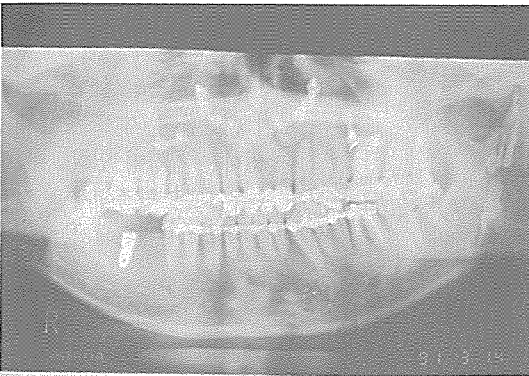


사진 3. 수술방법은 Le Fort I 골절단술을 사용하였으며 Bone plate를 사용한 Rigid-Fixation으로 수술 후 곧 연동식을 섭취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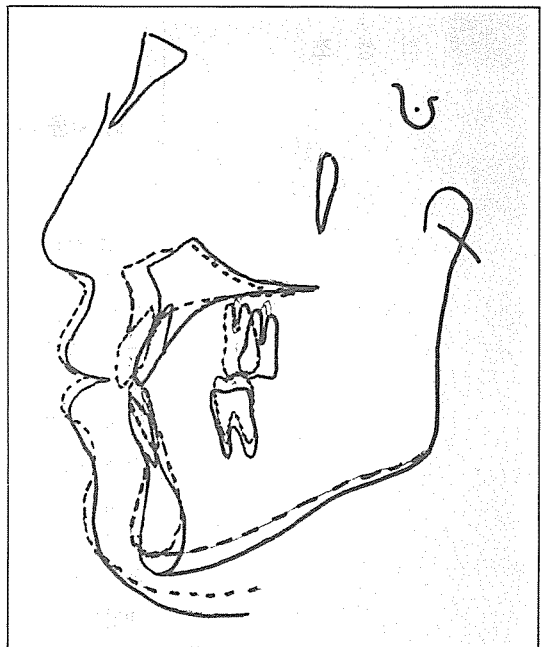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상악의 Le Fort I 골절단술에 의하여 상악치아와 상악 골이 전방으로 이동되고 하악이 자동적으로 회전되어 변화된 두부계측학적 사진의 술전·후의 투시도